生活科學硏究 第21輯 2011.
Journal of Human Ecology
Vol. 21, 2011.

청소년 전통복식문화의 인식 및 태도에 관한 연구

선 미 진 · 위 은 하*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가정교육전공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교수 · 생활과학연구소 연구원*

A Study on the Recognition and Attitude of Traditional Costume Culture in High School Students

Sun Mi-jin · Wee Eun-hah*

Major in Home Economics Educ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500-757, Korea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College of Human Ecolog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500-757

〈목 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및 해석
Ⅴ. 요약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The recognition against the traditional costume culture of the young people and the attitude place it confronted from the research which it sees and it observed and to sleep report it did. Objective of the research which it sees south of hazard Kwangju wide area hour subject matter high school 3 starting school, The 394 bringing up for discussion question data in data analysis it executed this investigation in the investigation object, it used. Question it will yell with the investigation tool for a collection of data and it used, the data which is collected analyzed about under SPSS/WIN 14.0 (kr) using.

As a result, the young people the succession will and the self-conceit against a traditional costume culture it is high but there is a possibility the experience a traditional costume culture

compare in him and against knowing the lowness. The young people traditional costume culture the chance which is the possibility of coming in contact is insufficient and it is limited and the education from the school or the family and the society is disappearing gradually and from viewpoint to understand it does.

The traditional costume this feather of the ancestors is our specific cultures which hold. Certainly must be with reason to defend the costume and the tradition which us are specific and the thin thing knows and to understand meaning which the traditional culture which begins the traditional costume is true, it develops and will do.

Key words: 전통복식문화태도(Attitude of Traditional Costume Culture), 고등학생(High School Students)

Ⅰ. 서론

우리 복식문화는 개화기의 문화접변으로 인해 한복과 양복의 이중구조를 이루었지만 서서히 전통복식은 실생활과 멀어지게 되었고 21세기에 들어선 지금 우리에게 전통복식문화는 특별한 행사에나 접하는 문화가 되었다. 현대사회의 사람들은 편리성과 실용성을 추구하는 서양의복을 일상의 복식문화로 자리를 굳혔다.

전통복식은 현대사회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자리를 좁혀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전통복식의 계승과 발전의 의미로 전통의 선과 색을 응용한 개량한복이 선보이고 있다. 또한 TV시대극이나 박물관 견학, 학교교육과정을 통해서 전통복식문화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있다. 그리고 명절이나 특별한 행사에서 전통복식착용을 체험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기회나 비중은 적은 편이다. 이렇게 생활과 근접하지 않은 우리의 전통복식문화는 현대사회사람들에게는 생활과 동떨어진 문화로 윗세대보다는 아랫세대에 그 현상이 더 확연하게 나타난다.

한편, 현 시대의 교육과 입시제도는 청소년들을 선발문화에 익숙하게 몰고 있으며 학교나 학원을 제외한 청소년들의 문화공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그로인해 그들만의 문화는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김영복(2009)은 자아정체감 확립을 위한 정서발달을 위하여, 현실적이면서도 긍정적이고 안정된 정서를 발달시키는 역할을 선택하는 다양한 역할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과정이 구성·운영·평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들어선 지금 지식이란 단순히 '앎'만을 뜻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기존의 지식을 바탕으로 새롭게 창출하고 조직하여 체계화함으로써 다시 새로운 것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포괄하는 개념일 것이다. 그러한 능력을 청소년들에게 효율적인 교육을 통해 길러주어야 할 것이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은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의 토대 위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이라는 인간상을 추구하고 있다. 학교 급별 교육 목표는 '우리의 전통과 문화를 이해하고 애호하는 태도를 가진다'는 초등학교 교육목표, '우리의 전통과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지니고, 이에 발전시키려는 태도를 가진다'는 중학교 교육목표, '우리의 전통과 문화를 세계 속에서 발전시키려는 태도를 가진다'는 고등학교 교육목표를 두고 있다. 이처럼 모든 학교 급별 목표에는 '전통과 문화에 대한 태도'가 언급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시행중인 7차 교육과정의 중, 고등학교 기술·가정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전통복식문화에 대한 내용은 국민공통교육과정 중학교 2학년 '1단원 의복마련관리' 와 고등학교 선택과목 가정과학 '3단원 한국의복' 부분에 실려 있다. 그리고 기술·가정의 10학년에서 의생활 문화에 대해 다루고 있지만 교과서에서는 착용법과 의복구성법에 치중되어 있어 사실 우리의 전통복식문화를 교육하기에는 미흡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이 우리의 전통복식문화를 알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연구되고 교육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민족사관 설립자 최명재 회장은 우리 옷을 입는다는 것은 우리 민족의 전통 속에서 정신을 키워간다는

뜻으로, 이는 매우 중요한 교육적 장치의 하나라고 하였다(최명재, 2004). 의복에 대한 태도는 흥미, 관습, 습관, 선택 및 착용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개인과 집단의 가치관, 성격, 태도, 신분을 반영한다. 또한 의복은 착용한 사람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추상적인 것들, 즉 개인의 내면적인 특성들이 의복행동에 반영되고 또 한편으로는 의복행동으로써 그가 말로 표현하지 않는 감정이나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욕구 등을 추측할 수 있다고 하였다(김흥미. 2007, 재인용).

전통문화와 관련한 연구들을 통해 청소년의 교육에 전통문화는 긍정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전통생활문화의 일환인 전통복식문화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 및 태도를 살펴봄으로써 전통복식문화관련 프로그램과 교과지도의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전통복식문화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전통복식문화 척도의 구성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전통복식문화의 인식 및 태도차이와 전통복식문화의 구성요인에 따라 그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가. 청소년의 전통복식문화의 인식 및 태도의 구성요인은 무엇인가?
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전통복식문화의 인식 및 태도의 차이는 어떠한가?
다. 청소년의 전통복식문화 인식 및 태도에 대한 특성은 어떠한가?

Ⅱ. 이론적 배경

1. 청소년기의 특징

청소년기는 급속한 외형적 성장과 생식능력을 획득하는 신체적 발달과 보다 수준 높게 사고하는 인지적 발달, 인간관계에 대한 탐색, 자유와 독립심, 책임의식 등을 키우는 사회적 발달, 변화가 심한 정서를 조절하고 통제하며 정서적 발달을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자신의 성격, 취향, 가치관, 능력, 관심 등에 비교적 안정된 느낌을 갖는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게 된다. Erickson(1980)은 청소년기를 자아정체감대 역할혼란의 시기로 보는데 발달 단계마다 '발달적 위기'가 있어 성격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달할 수도 있고 위험한 쪽으로 나아갈 수 도 있다고 하였다. 각 발단단계의 위기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부정적인 면보다 긍정적인 면으로 해결하는 비율이 더 많을 때 성격발달에서 더 성숙하게 되고 성격 또한 더욱 원숙하게 된다고 하였다.

청소년들은 개인적인 문제(키, 비만, 성, 성격 등), 가정의 문제(부모형제와의 관계, 가정불화, 경제적 문제 등), 친구관계, 학교생활 등의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을 경험하게 한다.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청소년의 게임, 비행, 우울, 자살, 성에 대한 이슈는 매스컴에서 매일 보도되고 있고, 관련연구 또한 꾸준하게 이어져 오고 있다.

이주연(2001)은 통신 중독 경향 청소년들의 사회적 지지 지각과 자아정체감의 차이를 살펴보았는데 통신 중독 경향 청소년들은 사회적 지지 지각과 자아정체감 형성이 낮게 나타나므로 청소년기에 통신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보고 하였다. 박소영(2009)은 강력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은 높은 정서 불안정이 대인관계나 가족관계에서 갈등과 정서적인 혼란을 겪게 되어 불안 및 우울을 해소하기 위해 공격적인 행동으로 비행을 저지르게 된다는 것을 예측하였다고 하였다.

양미진, 이은경, 이희우(2006)의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기의 학생들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정신건강유지를 어렵게 하는 측면이 많아지는 동시에 생활을 관리하는 능력 또한 커지고 있다고 하였다. 중학생의 경우는 '친구 문제'로 상담실을 찾는 경우가 초등학생이나 고등학생에 비해 많고 고등학생의 경우는 불안이나 가출, 비행, 가족문제, 학교부적응 같은 문제로 방문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하였다. 때문에 청소년 상담시 발달적, 예방적 접근뿐만 아니라 개인의 정서적 측면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이를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정서적 접근도 활용하는 것이 우울이나 불

안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청소년들에게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는 교육은 발달과정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정서적 안정을 도울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2. 청소년과 전통문화

전통문화의 개념을 살피기에 앞서 문화에 대해 살펴보면 문화란 인간의 행동을 유도 규제하는 것으로, 인간이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서 공유하는 상징체계이자 정신의 창조과정이다. 문화는 인간의 사고와 행동에 의해서 형성되며 이렇게 형성된 문화는 상호작용의 과정에서 학습되고 공유된다. 일반적으로 문화의 개념은 인간의 욕망에 따라 사고하고 행동하는 물질적 생활양식이 모든 사람에게 받아들여져 그것이 표준화, 일반화되는 시대적 역사적 산물이다(김미경, 2003).

유네스코는 2002년 "문화는 한 사회 또는 사회적 집단에서 나타나는 예술, 문학, 생활양식, 더부살이, 가치관, 전통, 신념 등의 독특한 정신적, 물질적, 지적 특징"으로 정의하였다. 이처럼 문화는 예절, 의상, 언어, 종교, 의례, 법이나 도덕 등의 규범, 가치관과 같은 것들을 포괄하는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이라 할 수 있다(위키백과, 2010. 3. 20).

유송옥(2001)은 생활양식은 자연 조건과 사회 조건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므로 같은 자연 조건을 가진 나라라도 시대에 따라 사회 조건이 다르면 그것에 의하여 생활양식이 바뀌고 따라서 의상도 변하게 된다. 자연 조건으로는 기후, 풍토적인 요인이 있고, 사회 조건으로는 종교, 예술, 정치, 경제, 사상, 철학 등의 광범위한 문화적 요인이 있다고 하였다.

김송미(2008)는 청소년의 문화원 전통수업체험에 관한 연구에서 청소년들은 문화원 전통수업수강을 통해 정서적, 사회적, 인성·예절적 체험을 하게 되고 이를 통해 뿌듯함, 자신감, 인내심, 경쟁심, 즐거움, 재미를 경험하게 되며 수강생간의 유대관계, 내 물건에 대한 애착, 예의·예절의 변화, 어른에 대한 공경심, 그리고 식습관의 변화까지 여러 변화과정을 체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수강체험을 바탕으로 참여자들은 자신이 느끼는 긍정적 인식, 또래들이 느끼는 부정적 인식에 대해 진술하며 외래문화의 무분별한 유입으로 인한 우리문화의 소멸위기를 통해 전통교육의 필요성을 진술하였다.

배현영(2008)은 기술적 관점 위주의 전통적인 의생활 분야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해석적 관점에서 의생활 분야를 살펴보고 의생활 문화 영역에서 해석적 관점을 중심으로 한 교육과정으로 교육목표, 내용체계, 교수-학습지도안,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하여 이를 적용하고 학생들의 수업활동 인식도와 주관적 평가, 교사들의 평가를 살펴본 결과 학생들은 전통문화를 인식하고 의생활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 해답을 찾는데 도움이 되었고 교육내용을 새로운 지식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경진(2009)은 전통생활문화교육 및 전통복식문화와 청소년의 학교 적응은 밀접한 상관이 있으며 영향을 미치므로 학교에서의 전통생활문화에 기초한 교육이 중요하다 할 수 있으며 청소년은 정체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고 불안정한 시기여서 오히려 우리의 전통문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질 수 있으므로 전통생활문화교육 및 전통복식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학교 교육과 청소년의 관심을 유도하고 흥미를 고려한 교육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박찬이(2010)는 차 문화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정서적 안정성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한 결과 차 문화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의 정서적 안정성과, 자기효능감에 효과적이라고 보고 하였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 주목할 점은 학생들은 프로그램을 가장 만족하는 이유로 '체험의 기회'를 들었으며,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으로는 '한복 입어보기'라고 하였다. 또 참가전후의 변화에 있어서는 예의범절을 준수하게 되었고, 정서와 관련된 자신의 변화에 있어서는 편안함을 더 느끼게 되었고, 감정조절과 관련된 자신의 변화에 있어서는 조절력이 강화되어 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하였다.

김형심(2007)은 청소년의 문화 활동 경험이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문화 활동 참여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그렇지 못한 청소년보다 자아정체감이 높다고 하였다. 참여기간, 1일 평균 할애시간, 참여 정도가 자아정체감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을 자율적 주체로서 인정하고 스스로 예술적 관심과 취향을 만들어 나가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하였다

이처럼 전통문화생활활동과 교육은 청소년들에게 인지적, 정의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청소년들의 발달에 조력을 될 수 있는 전통문화프로그램이 교육현장에서 제공되어야 한다고 본다.

3. 청소년과 전통복식문화

전통복식은 고대부터 착용해온 의복이 고유한 주변 환경과의 접촉을 통해 그들만의 복식문화를 만들고 전통성을 유지하며 오늘날까지 전해져오는 복식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의 대표적인 전통복식문화로 한복과 장신구 등을 들 수 있다. 한복의 아름다움은 곧은 선과 은은히 흐르는 곡선으로 이루어지는 너그럽고 유연한 선의 흐름에 있다. 또한, 단일민족의 청렴결백함과 전통성을 고수하는 음양오행설을 바탕으로 한 배색의 조화에 있다(안명숙, 김용서, 2001).

우리 일상에서 멀어진 전통복식문화를 청소년들은 TV사극, 연예프로그램, 인터넷 등에서 접할 뿐이고 전통복식문화체험을 하기에는 어려운 편이다. 청소년들에게 우리의 전통복식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이해와 인식을 통해 전통복식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키우기 위한 세계화 교육의 필요성은 이미 1990년도 후반부터 제기되어 왔다(박현정, 2006). 김여경(2010)도 2000년 이후 인쇄매체에 나타난 한복의 조형미 연구에서는 2000년 이후 한국에 대한 자긍심을 바탕으로 한복을 통하여 민족적 가치를 강조하였다. 배혜영(2003)은 “고구려 고분벽화와 조선 후기 풍속화에 나타난 복식의 미” 감상에 관한 연구를 통해 학생들에게 전통미술을 감상할 수 있는 눈을 키우고, 과거와 현재를 이해하며 심미적 태도와 상상력, 미술문화를 이해하게 하였다고 하였다. 유희정(2008)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연계 복식교육프로그램 모델을 제안하였다. 고유의 정체성과 복식자료의 정확한 해석을 토대로 한정된 계층만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아니라 다양한 대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고 누구나 쉽게 복식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내용과 차별화된 교육형식을 적용한 맞춤형 복식교육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개발 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이은미(2008)는 전통 장신구를 관찰·분석·해석하고 미적 가치를 발견함으로써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게 되고 세계 속에서 경쟁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에 교육적 의의가 있으며 꾸준한 관심과 함께 우리의 장신구 문화가 국가의 경쟁력이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전통 장신구를 활용하여 계승, 발전시켜 나가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라고 하였다. 정순덕(2009)은 학생들에게 기초 문양을 이해하고 의상과 장신구 만들기에 적용해 봄으로써 전통미를 발견하고 그에 대한 긍지를 가짐과 동시에 이를 계승하고자 하는 의지를 작품으로 표현하게 한 결과 현재나 미래 생활에서 삶의 일부인 패션이란 자신이 만족하고 개성적이며 멋스러워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연구가 있다.

윤상희(2008)는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경쟁력 있는 새로운 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 문화 창출자로서의 충동력을 키우기 위하여 ‘세계 전통의복을 활용한 의상디자인’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세계의 아름다움을 함께 공유하고 더불어 함께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다문화 교육의 시행을 위해 그 몫을 다 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고 하였다. 김도영(2006)은 한국복식에 대한 관심은 우리 문화유산의 정착을 위해 필요한 것이므로 전통한복의 맥이 생활 속에 묻어져 한국인이 전통복식을 올바로 계승할 수 있도록 일깨울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학교교육에서 규방공예를 접목시킨 연구는 꾸준하게 연구되고 있다. 가정과 의생활영역에서는 천연염색과 조각보 만들기 수업을 실시한 후 전통이미지 인식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전통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매우 긍정적으로 향상되었다는 연구(박희순, 2008)가 있었다. 천염염색과 조각보 만들기 수업을 통해 전통이미지에 대한 다양한 분야의 활용성과 창조성 및 전통에 대한 자긍심은 수업과정을 통해 향상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최인려, 홍경희(2009)는 남녀 대학생의 전통한복에 관한 태도연구에서 남녀 대학생들의 전통한복의 이미지는 부정적 이미지와 긍정적 이미지가 혼재되어 있는데 남녀 대학생들은 한복의 세계화를 개선할 점으로 디자인, 소재, 문양이외에 한복 디자이너 양성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그리고 대학의 전통복식교육의 부족을 언급하며 전문적인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에 대한 적극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이와같이 전통복식교육 관련연구를 살펴본 결과 현재의 부정적이고 불편한 복식이미지에서 벗어나 현재의 문화에 맞춰 계승시켜야 한다는 것이 주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전통복식문화의 교육의 중요도, 관심과 가치관 등의 의식 및 태도는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광주광역시 소재의 고등학교 3개교의 남, 여학생 400명이었다. 본 조사를 수행하기에 앞서 2009년 9월 1일 3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본 조사는 2009년 9월10일~9월 30일에 걸쳐 이루어졌다.

조사방법은 설문지를 이용하여 실시하였으며 총 400부를 배부하여 400부를 회수하였다. 이 중 부실 기재한 설문지 6부를 제외한 394부의 설문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394

변인	구분	N(%)	변인	구분	N(%)
성별	남학생	196(49.7)	출생순위	첫째	194(49.2)
	여학생	198(50.3)		중간	46(11.7)
종교	기독교	88(22.3)		막내	138(35.0)
	천주교	29(7.4)		외동	15(3.8)
	불교	36(9.1)	가족형태	확대가족	13(3.3)
	없음	227(57.6)		핵가족	381(96.7)
	기타	12(3.0)			
부 연령	30대	3(0.8)	모 연령	30대	28(7.1)
	40대	293(74.4)		40대	326(82.7)
	50대 이상	94(23.9)		50대 이상	29(7.4)
부 학력	중학교 졸업이하	10(2.5)	모 학력	중학교 졸업이하	13(3.3)
	고등학교 졸업	168(42.6)		고등학교 졸업	240(60.9)
	대학교 졸업	184(46.7)		대학교 졸업	118(29.9)
	대학원 졸업이상	25(6.3)		대학원 졸업이상	14(3.6)
부 직업	회사원	135(34.3)	모 직업	회사원	67(17.0)
	공무원	44(11.2)		공무원	22(5.6)
	자영업	95(24.1)		자영업	54(13.7)
	전문직	24(6.1)		전문직	21(5.3)
	생산, 기술직	47(11.9)		생산, 기술직	20(5.1)
	판매, 서비스	16(4.1)		판매, 서비스	34(8.6)
	농, 수산, 임업	8(2.0)		농, 수산, 임업	5(1.3)
	미취업	18(4.6)		미취업	131(33.2)
	기타	1(0.3)		기타	31(7.9)

2. 조사도구

연구문제를 실증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도구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2부분으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측정하는 7문항, 전통복식문화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측정하는 2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전통복식문화에 대한 인식 및 태도의 정도를 측정하는 문항들은 모두 '매우 그렇다'의 경우 5점, '그렇다'의 경우 4점, '보통이다'의 경우 3점, '그렇지 않다'의 경우 2점, '전혀 그렇지 않다'의 경우 1점을 주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전통복식문화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묻는 문항은 한경진(2009)이 제작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설정된 연구문제를 알아보기 위해 수집된 자료들을 SPSS/WIN 14.0(kr)을 사용하였다. 각 내용별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생의 전통복식문화에 대한 인식 및 태도의 구성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요인분석(Varimax-rotate)을 실시하였다.

둘째, 고등학생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전통복식문화의 인식 및 태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t-test와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셋째, 고등학생의 전통복식문화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대한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Ⅳ. 연구결과 및 해석

1. 전통복식문화에 대한 인식 및 태도의 구성요인

고등학생의 전통복식문화에 대한 인식 및 태도의 구성요인을 도출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전통복식문화의 인식 및 태도를 분석한 결과 요인 값이 적은 13, 14번 문항을 제외한 23문항에서 전통복식문화에 대한 5요인이 도출되었다.

요인 1은 전통복식문화의 교육의 중요성 요인으로 '학교에서 전통복식교육을 해야 한다.' '가족행사에 전통복식을 입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전통복식교육은 우리의 전통문화를 이해하고 예절을 배우는 일이므로 중요하다.' '나는 학교에서 전통복식교육을 배우고 싶다.' '학교에서의 전통복식교육은 관련 분야의 직업교육에 도움이 되므로 중요하다.'의 문항으로 묶어 전통복식문화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고유치는 4.43, 설명변량은 17.7%, 신뢰도(Cronbach α) 계수는 0.86으로 나타났다

요인 2는 전통복식문화의 지식 및 관심 요인으로 '나는 규방공예(보자기, 자수, 천연염색, 매듭 등)를 알고 있다.' '나는 한복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나는 규방공예를 활용한 소품을 가지고 있다.' '나는 규방공예를 배울 기회가 있다면 배우고 싶다'. 의 문항으로 묶어 전통복식문화에 대한 "지식 및 관심"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고유치는 4.00, 설명변량은 16.0%, 신뢰도(Cronbach α) 계수는 0.71로 나타났다.

요인 3은 전통복식문화의 계승의지 요인으로 '한복은 현재 생활에 맞도록 개량발전 시켜야 한다.' '한복이 외국과의 문화교류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전통복식을 입고 예절을 배우는 것은 우리들의 정서함양에 도움이 된다.'의 문항으로 묶어 전통복식문화에 대한 "계승의지"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고유치는 2.70, 설명변량 10.8%, 신뢰도(Cronbach α)계수 0.74로 나타났다.

요인 4는 전통복식문화의 자부심에 관한 요인으로 '나는 사극이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전통복식이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나는 규방공예(보자기, 자수, 천연염색, 매듭 등)를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전통복식이 다른 나라의 전통복식에 비해 특히 우수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외국 친구들과 파티를 한다면 한복을 입고 싶다.' '나는 우리의 전통복식의 색이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나는 사극이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전통복식을 입어보는 행사가 있다면 참가하고 싶다.' '외국 영화제에 우리나라 배우가 한복이나 한복을 응용한 드레스를 입는다면 자랑스러울 것이다.' '나는 한복이 아름다운 곡선미를 가졌다 생각한다.'의 문항으로 묶어 전통복식문화의 "자부심"으로 명명하였다. 고유치는 2.03, 설명변량은 8.1%, 신뢰도(Cronbach α) 계수는 0.88로 나타났다.

요인 5는 전통복식문화에 대한 경험으로 '나는 명절이나 가족행사에 한복을 착용한 적이 있다.'와 '부모님은 명절이나 가족행사에 한복을 착용하신다.' '나는 한복을 가지고 있다.' 의 문항으로 묶어 전통복식문화에 대한 "경험"요인으로 명명하였다. 고유치는 1.86, 설명변량은 7.4%, 신뢰도(Cronbach α)계수는 0.51로 전통복식문화의 구성 요인 중 가장 낮게 났다.

이와 같이 전통복식문화에 대한 인식의 구성요인을 도출한 결과 전통복식문화의 교육의 중요성, 전통복식문화에 대한 지식 및 관심, 전통복식문화의 계승의지, 전통복식문화에 대한 자부심, 전통복식문화에 대한 경험의 5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5요인의 총 설명력은

〈표 2〉 전통복식문화에 대한 인식 및 태도의 구성요인

N=394

요인 1 교육의 중요성 (고유치=4.43, 설명변량=17.7%, chronbach α=0.86)		요인값
1	학교에서 전통복식교육을 해야 한다.	.790
2	가족행사에 전통복식을 입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740
5	전통복식교육은 우리의 전통문화를 이해하고 예절을 배우는 일이므로 중요하다.	.753
7	나는 학교에서 전통복식교육을 배우고 싶다.	.683
9	학교에서의 전통복식교육은 관련 분야의 직업 교육에 도움이 되므로 중요하다.	.693
요인 2 지식 및 관심 (고유치=4.00, 설명변량=16.0%, chronbach α=0.71)		
4	나는 규방공예(보자기, 자수, 천연염색, 매듭 등)를 알고 있다.	.803
6	나는 한복에 대해 잘 알고 있다.	.599
15	나는 규방공예(보자기, 자수, 천연염색, 매듭 등)를 활용한 소품을 가지고 있다.	.686
25	나는 규방공예(보자기, 자수, 천연염색, 매듭 등)를 배울 기회가 있다면 배우고 싶다.	.514
요인 3 계승의지 (고유치=2.70, 설명변량=10.8%, chronbach α=0.74)		
21	한복은 현재 생활에 맞도록 개량·발전시켜야 한다.	.787
22	한복이 외국과의 문화교류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779
23	전통복식을 입고 예절을 배우는 것은 우리들의 정서 함양에 도움이 된다.	.529
요인 4 자부심 (고유치=2.03, 설명변량=8.1%, chronbach α=0.88)		
3	나는 사극이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전통복식이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639
10	나는 규방공예(보자기, 자수, 천연염색, 매듭 등)를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588
11	우리나라 전통복식이 다른 나라의 전통복식에 비해 특히 우수하다고 생각한다.	.633
17	나는 외국 친구들과 파티를 한다면 한복을 입고 싶다.	.542
18	나는 우리의 전통복식의 색이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807
19	나는 사극이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전통복식을 입어보는 행사가 있다면 참가하고 싶다.	.618
20	외국 영화제에 우리나라 배우가 한복이나 한복을 응용한 드레스를 입는다면 자랑스러울 것이다.	.633
24	나는 한복이 아름다운 곡선미를 가졌다 생각한다.	.716
요인 5 경험 (고유치=1.86, 설명변량=7.4%, chronbach α=0.51)		
8	나는 명절이나 가족행사에 한복을 착용한 적이 있다.	.584
12	부모님은 명절이나 가족행사에 한복을 착용하신다.	.643
16	나는 한복을 가지고 있다.	.739
총 설명변량= 60.0%		

60.0% 이었다. 여중생을 대상으로 한 한경진(2009)의 연구에서는 도출된 구성요인은 전통복식문화에 대한 계승의지, 자부심, 교육의 중요성, 관심, 경험 및 태도이며 전통복식문화의 총 설명력은 64.43%로 본 연구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2.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전통복식문화의 인식 및 태도

고등학생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전통복식문화에 대한 인식 및 태도의 차이를 살펴 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전통복식문화에 대한 인식 및 태도는 성별, 출생순위, 종교, 부 연령, 모 연령, 부 직업, 모 직업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전통복식문화에 대한 자부심($p<.001$), 교육의 중요성($p<.001$), 지식 및 관심($p<.001$), 계승의지($p<.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전통복식문화에 대한 자부심, 교육의 중요성, 지식 및 관심, 계승의지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특히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전통복식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지식 및 관심이 높았었다. 이는 의생활 내용에 대한 남녀 학생간의 인식의 차이가 크며 교육내용이 여

〈표 3〉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전통복식문화의 인식 및 태도

N=394

변인	구분	N	교육의 중요성	지식 및 관심	계승의지	자부심	경험
			M(SD)	M(SD)	M(SD)	M(SD)	M(SD)
성별	남학생	196	2.50(.90)	2.22(.76)	3.36(.92)	3.08(.85)	2.41(.83)
	여학생	198	2.87(.81)	2.82(.79)	3.70(.84)	3.80(.72)	2.46(.88)
	t		-4.24***	-7.61***	-3.91***	-9.05***	- .60
출생순위	첫째	194	2.67(.84)	2.55(.82)	3.59(.89)	3.47(.87)	2.49(.90)
	중간	46	3.02(.82)	2.63(.92)	3.59(1.03)	3.75(.89)	2.47(.82)
	막내	138	2.62(.89)	2.46(.80)	3.46(.85)	3.34(.85)	2.36(.82)
	외동	15	2.43(1.08)	2.41(1.10)	3.24(.96)	3.37(.82)	2.24(.75)
	F		3.08*	1.64	1.16	2.70*	.84
가족형태	확대가족	13	2.40(.70)	2.19(.71)	3.26(1.13)	3.08(.90)	2.56(1.07)
	핵가족	376	2.70(.87)	2.70(.87)	3.54(.88)	3.47(.85)	2.43(.85)
	t		-1.23	-1.47	-1.13	-1.63	.56
종교	기독교	88	2.72(.81)	2.55(.79)	3.47(.78)	3.47(.83)	2.63(.70)
	천주교	29	2.56(.79)	2.50(.89)	3.63(.94)	3.47(.82)	2.44(.87)
	불교	36	2.66(.95)	2.58(.87)	3.53(.97)	3.44(.88)	2.40(.92)
	무교	227	2.69(.89)	2.54(.84)	3.55(.90)	3.44(.88)	2.40(.88)
	기타	12	2.68(.99)	2.25(.83)	3.30(1.22)	3.33(1.04)	1.75(.88)
	F		.19	.41	.39	.07	3.21*
부 연령	30대	3	2.73(.83)	3.75(1.09)	3.00(.88)	2.67(1.08)	3.44(.19)
	40대	293	2.73(.86)	2.54(.82)	3.55(.87)	3.48(.86)	2.43(.83)
	50대이상	94	2.59(.90)	2.45(.83)	3.53(.94)	3.42(.85)	2.40(.92)
	F		.88	3.69*	.58	1.49	2.19

변인	구분	N	교육의 중요성	지식 및 관심	계승의지	자부심	경험
			M(SD)	M(SD)	M(SD)	M(SD)	M(SD)
모 연령	30대	29	2.45(.96)	2.51(.97)	3.14(1.12)	3.15(.93)	2.61(.99)
	40대	326	2.73(.86)	2.56(.82)	3.58(.86)	3.51(.85)	2.41(.83)
	50대이상	29	2.48(.93)	2.25(.82)	3.47(.96)	3.27(.94)	2.46(1.03)
	F		2.34	1.85	3.24*	3.05*	.74
부 학력	중학교졸업이하	10	2.46(.74)	2.55(1.04)	3.17(.95)	3.36(.65)	2.43(.87)
	고등학교졸업	168	2.67(.86)	2.48(.79)	3.48(.88)	3.33(.86)	2.48(.81)
	대학교졸업	184	2.71(.88)	2.56(.84)	3.57(.88)	3.55(.82)	2.49(.81)
	대학원졸업이상	25	2.87(.94)	2.65(1.04)	3.92(.92)	3.66(1.07)	2.44(.84)
	F		.65	.41	2.61	2.51	.49
모 학력	중학교졸업이하	13	3.09(.63)	3.64(.62)	3.64(.62)	3.66(.61)	2.51(.78)
	고등학교졸업	240	2.62(.86)	3.48(.91)	3.49(.91)	3.40(.84)	2.35(.84)
	대학교졸업	118	2.76(.93)	3.59(.92)	3.59(.92)	3.49(.92)	2.59(.87)
	대학원졸업이상	14	2.86(.78)	3.76(.71)	3.76(.71)	3.80(.85)	2.40(.62)
	F		1.78	.98	.71	1.41	2.06
부 직업	회사원	135	2.65(.86)	2.40(.86)	3.41(.97)	3.33(.87)	2.42(.85)
	공무원	44	2.98(.97)	2.79(.76)	3.79(.90)	3.82(.81)	2.61(.88)
	자영업	95	2.62(.87)	2.64(.87)	3.52(.90)	3.52(.76)	2.38(.90)
	전문직	24	2.72(.90)	2.47(.52)	3.61(.75)	3.33(.82)	2.58(94)
	생산, 기술직	47	2.77(.90)	2.53(.84)	3.65(.81)	3.49(.92)	2.31(.77)
	판매, 서비스	16	2.65(.78)	2.45(.91)	3.52(.89)	3.51(.84)	2.40(.80)
	농, 수산, 임업	8	2.95(.94)	2.53(.69)	4.08(.53)	3.67(.49)	2.88(.69)
	미취업	1	2.00(.)	2.00(.)	2.33(.)	1.50(.)	3.33(.)
	기타	18	2.48(.61)	2.22(.62	3.43(.54	3.35(.79)	2.33(.74)
	F		1.07	1.58	1.52	2.34*	.94
모 직업	회사원	67	2.74(.83)	2.40(.88)	3.44(1.04)	3.43(.85)	2.33(.78)
	공무원	22	3.09(1.11)	2.62(.92)	3.85(1.06)	2.63(1.08)	2.71(.99)
	자영업	54	2.69(.98)	2.42(.85)	3.50(.94)	3.51(.75)	2.27(.82)
	전문직	21	2.29(.93)	2.31(.90)	3.65(.78)	3.31(.97)	2.19(.93)
	생산, 기술직	20	2.80(.92)	2.71(.67)	3.53(.75)	3.68(.58)	2.52(.89)
	판매, 서비스	34	3.08(.77)	2.85(.77)	3.67(.90)	3.62(.88)	2.45(.92)
	농, 수산, 임업	5	2.40(.72)	2.35(.95)	3.60(.76)	3.09(.94)	2.73(.76)
	주부	131	2.65(.81)	2.63(.81)	3.55(.84)	3.44(.90)	2.52(.84)
	기타	31	2.37(.63)	2.25(.72)	3.29(.90)	3.46(.77)	2.45(.91)
	F		2.75**	2.03*	.86	.79	1.17

* p<.05, ** p<.01, *** p<.001

성에게 더 적합하게 구성되어 있다(강미향, 2005; 송경아, 2006; 이광미, 2004; 이수희, 신상옥, 1997; 전경숙, 최동숙, 2007)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최인려, 홍경희(2009)의 연구에서도 미디어를 통해본 전통한복을 묻는 '전통한복에 인식을 바꿔놓았다고 생각한다.' '전통한복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의 문항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더 높게 나타나 여학생은 의생활에 대한 인식이 남학생보다 높다고 볼 수 있다.

출생순위에 따라 전통복식문화에 대한 자부심($p<.05$), 교육의 중요성($p<.05$)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중간 출생순위는 다른 출생순위에 비해 전통복식문화에 대한 자부심, 교육의 중요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홍연림(1999)의 연구에서 둘째는 높은 수준의 활동성을 보이고, 부모가 첫째에 비해 그들과 강한 정서적 기대를 갖지 않으므로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많은 자유를 갖는다고 하였다. 그러한 활동성과 자율성은 자신과 관련된 것에 스스로 가치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자부심과 긍정적 관계를 나타냈다 사료된다.

가족형태에 따라서는 전통복식문화에 대한 자부심, 교육의 중요성, 지식 및 관심, 계승의지가 핵가족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전통복식문화에 대한 경험은 확대가족에서 더 높게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종교에 따라 전통복식문화에 대한 경험($p<.05$)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기독교는 전통복식문화에 대한 태도가 다른 종교에 비해 경험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부 연령에 따라 전통복식문화에 대한 지식 및 관심($p<.05$)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부 연령이 30대일 때 지식 및 관심이 더 높게 나타났다. 한경진(2009)의 연구에서도 부 연령이 30대일 때 전통복식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나 본 연구에서 부 연령이 30대인 학생은 3명으로 확대해석은 무리가 있다.

모 연령에 따라서는 자부심($p<.05$)과 계승의지($p<.05$)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모 연령이 40대일 때 자부심과 계승의지가 높게 나타났다. 한경진(2009)의 연구에서도 전통복식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계승의지는 모 연령이 30대이거나 50대 이상인 보다 40대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현재의 모 연령이 40대인 청소년은 전통복식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계승의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더 긍정적이라 볼 수 있다.

부 직업에 따라서는 자부심($p<.05$)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부 직업이 공무원일 때 자부심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부 직업이 공무원인 학생은 전통복식문화에 대해 경험을 제외한 자부심, 교육의 중요성, 지식 및 관심, 계승의지에서 더 높게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모 직업에 따라서도 교육의 중요성($p<.01$), 지식 및 관심($p<.05$)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모 직업이 공무원일 때 교육의 중요성에서 높게 나타났고, 판매, 서비스업일 때 관심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부모의 직업이 공무원일 때 전통복식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교육의 중요성, 지식 및 관심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부모의 직업이 사무직이나 관리직 및 전문직인 집단은 무직 및 전업주부인 집단보다 교육체험지향활동에 대한 성향이 높다는 이민아(2006)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3. 전통복식문화의 인식 및 태도의 특성

전통복식문화에 대한 인식 및 태도는 전통복식문화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 지식 및 관심, 계승의지, 자부심, 경험의 5요인으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먼저, 전통복식문화에 대한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구성요인에 따라 그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전통복식문화의 인식 및 태도에 대한 일반적인 특성

다음은 고등학생의 전통복식문화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대한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았다. 고등학생의 전통복식문화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대한 특성은 〈표 4〉와 같다.

고등학생의 전통복식문화에 대한 인식 및 태도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고등학생의 전통복식문화의 인식 및 태도는 계승의지(3.53), 자부심(3.45), 교육의 중요성(2.69), 지식 및 관심(2.52), 경험(2.43)순으로 높은 평균값을 나타냈다. 전통복식문화에 대한 계승의지와 자부심은 보통(3.00)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전통복식문화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과 지식 및 관심, 경험은

〈표 4〉 전통복식문화의 인식 및 태도의 일반적인 특성

N=394

항 목		M(SD)
전통복식 문화의 인식 및 태도	교육의 중요성	2.69(1.11)
	지식 및 관심	2.52(1.10)
	계승의지	3.53(1.16)
	자부심	3.45(1.13)
	경험	2.43(1.19)

보통(3.00)보다 낮게 나타났다. 여중생을 대상으로 한 한경진(2009)의 문항에서는 자부심과 계승의지는 3.59와 3.53으로 보통(3.00)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의 중요성과 지식 및 관심, 경험은 2.95와 2.96, 2.83으로 보통과 가깝게 나타났다. 남, 녀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본 연구의 평균치는 여중생을 대상으로 한 한경진(2009)의 평균치보다 작게 나타났다. 하지만 여중생과 남녀 고등학생의 전통복식문화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서 청소년의 전통복식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계승의지는 높은 반면 상대적으로 교육의 중요성과 관심, 경험은 낮은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다. 특히 여중생과 남, 녀고등학생의 전통복식문화에 대한 경험은 다른 요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는데 이는 현재의 생활에서 전통복식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나) 전통복식문화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

고등학생의 전통복식문화교육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태도를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고등학생의 전통복식문화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살펴보면 평균 2.69로 보통(3.00)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별로 살펴보면 '나는 학교에서 전통복식교육을 배우고 싶다'(2.60)에서 살펴본 학교에서의 전통복식문화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 인식은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가족행사에 전통복식을 입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2.51)의 문항역시 보통보다 낮았는데 청소년들은 특정한 행사에 한복을 착용하는 것을 윗세대처럼 예의를 지키는 일이라고 의식하지 않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전통복식교육은 우리의 전통문화를 이해하고 예절을 배우는 일이므로 중요하다'(3.07)

〈표 5〉 전통복식문화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

N=394

항 목	M(SD)
학교에서 전통복식교육을 해야 한다.	2.56(1.15)
가족행사에 전통복식을 입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2.51(1.10)
전통복식교육은 우리의 전통문화를 이해하고 예절을 배우는 일이므로 중요하다.	3.07(1.03)
나는 학교에서 전통복식교육을 배우고 싶다.	2.60(1.16)
학교에서의 전통복식교육은 관련 분야의 직업 교육에 도움이 되므로 중요하다.	3.14(1.22)
평균	2.69(1.13)

는 보통으로 전통복식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지는 않다고 사료된다.

다) 전통복식문화에 대한 지식 및 관심

고등학생의 전통복식문화에 대한 현재의 지식과 관심의 정도를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전통복식문화에 대한 지식과 관심을 살펴보면 평균 2.52로 보통(3.00)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복, 규방공예 등에 잘 알지 못한 편이었고, 규방공예소품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도 상대적으로 적었다. '나는 규방공예(보자기, 자수, 천연염색, 매듭 등)를 알고 있다'(2.45), '나는 한복에 대해 잘 알고 있다'(2.45)의

〈표 6〉 전통복식문화에 대한 지식 및 관심

N=394

항 목	M(SD)
나는 규방공예(보자기, 자수, 천연염색, 매듭 등)를 알고 있다.	2.45(1.16)
나는 한복에 대해 잘 알고 있다.	2.45(0.88)
나는 규방공예(보자기, 자수, 천연염색, 매듭 등)를 활용한 소품을 가지고 있다.	2.25(1.20)
나는 규방공예(보자기, 자수, 천연염색, 매듭 등)를 배울 기회가 있다면 배우고 싶다.	2.92(1.28)
평균	2.52(1.11)

문항에서 보듯이 고등학생들은 규방공예나 한복에 대한 지식은 보통보다 낮은 편이었다. 최인려, 홍경희(2009)연구에서도 대학생들의 한복착용법의 지식정도의 결과는 평균 2.82로 보통(3.00)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것은 저고리와 치마 혹은 저고리와 바지를 입는 순서 정도를 숙지한 것으로 평상시 한복착용이 습관화되어 있지 않은 결과로 보여진다고 하였다. 또 '나는 규방공예(보자기, 자수, 천연염색, 매듭 등)를 활용한 소품을 가지고 있다'(2.25)의 문항도 보통보다 낮게 나타났다. 전통복식문화의 교육의 중요성 문항에서 '학교에서 전통복식문화교육을 배우고 싶다'(2.60)의 문항보다 '규방공예를 배울 기회가 있다면 배우고 싶다'(2.92)의 문항에서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통복식이라고 생각하는 '한복' 보다 작은 소품을 만드는 인식되는 '규방공예'에 대해 교육받고 싶은 성향이 높다고 사료된다. 학생들은 규방공예를 전통복식문화의 일부라고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사료된다. 전체적으로 전통복식문화에 대한 지식과 관심은 낮은 편이였다. 하지만 천연염색과 조각보 만들기 수업을 통해 전통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매우 긍정적으로 향상되었다는 연구(박희순, 2008)결과에서 보듯이 규방공예를 비롯한 전통복식문화 프로그램의 제공은 학생들에게 전통복식문화에 대한 관심을 긍정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규 가정수업을 비롯한 박물관, 문화센터, 방과 후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규방공예와 한복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우리 전통복식문화를 알릴 수 있는 효과적인 교육방안이라 본다.

라) 전통복식문화에 대한 계승의지

우리의 전통복식문화를 이어가고자 하는 계승의지에 대해 살펴보면 〈표 7〉과 같다.

전통복식문화의 계승의지는 평균 3.53으로 보통보다 높았다. 문항을 살펴보면 '한복은 현재 생활에 맞도록 개량·발전시켜야 한다'(3.65)로 보통보다 높아 한복을 개량·발전 시켜야 한다는 인식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학생들은 한복을 발전시키려 고안한 개량한복이 1990년대 말부터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한복은 불편하다'라는 인식을 버리지 못한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개량한복을 착용하는 한복 애호가들 사이에서는 '개량한복은 편하다'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표 7〉 전통복식문화에 대한 계승의지

N=394

항 목	M(SD)
한복은 현재 생활에 맞도록 개량·발전시켜야 한다.	3.65(1.15)
한복이 외국과의 문화교류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3.70(1.05)
전통복식을 입고 예절을 배우는 것은 우리들의 정서 함양에 도움이 된다.	3.20(1.11)
평균	3.53(1.10)

학생들에게 개량된 한복을 경험하게 하는 것도 한복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줄이는데 좋은 방법이 된다 생각된다. '한복은 외국과의 문화교류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3.70)의 문항은 높게 나타났는데 전통적인 것이 세계적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전통복식을 입고 예절을 배우는 것은 우리들의 정서함양에 도움이 된다'(3.20)의 문항에서 살펴보면 학생들이 전통문화를 통해 예절을 배우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본다. 이는 전통문화교육이 청소년의 정서순화에 도움이 된다는 선행연구들(김수영, 2010; 김전숙, 2007; 박찬이, 2010; 최윤실, 2010)에서 보듯이 전통복식을 비롯한 전통문화교육은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사료된다.

마) 전통복식문화에 대한 자부심

전통복식문화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묻는 자부심요인을 살펴보면 〈표 8〉과 같다.

전통복식문화에 대한 자부심은 평균 3.45로 보통보다 높게 나타났다. 주목할 것은 '우리나라 전통복식이 다른 나라의 전통복식에 비해 특히 우수하다고 생각한다.'의 문항은 평균 3.87로 5요인의 전체 문항을 통틀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른 문항들을 살펴보면 '나는 사극이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전통복식이 아름답다고 생각한다'(3.51), '나는 규방공예(보자기, 자수, 천연염색, 매듭 등)를 아름답다고 생각한다'(3.49), '나는 우리의 전통복식의 색이 아름답다고 생각한다'(3.77),

'외국영화제에 우리나라 배우가 한복이나 한복을 응용한 드레스를 입는다면 자랑스러울 것이다'(3.79), '나는 한복이 아름다운 곡선미를 가졌다고 생각한다'(3.71)로 전체적으로 전통복식문화에 대한 자부심은 보통보다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나는 외국 친구들과 파티를 한다면 한복을 입고 싶다'(2.40)와 '나는 사극이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전통복식을 입어보는 행사가 있다면 참가하고 싶다'(3.02)는 다른 자부심문항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은 전통복식에 대해 자부심을 긍정적으로 갖고 있으나 그것이 한복착용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한복에 대한 인지적, 감정적 반응이 매우 긍정적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한복착용행동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선행연구(정인희, 최선형, 강순제, 1997)에서도 보고되었다. 최인려, 홍경희(2009)의 남녀 대학생의 전통한복에 관한 태도 연구에서도 대학생들이 인식하는 한복의 이미지는 '예쁘지만 불편해 보인다', '보기는 좋지만 입고 싶지 않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이는 동시대에 살고있는 청소년들도 전통복식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지만 개인심리적 이유, 상황과 환경의 특성으로 일상의 한복착용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사료된다. 이렇듯 한복착용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의식 속에서 한복은 그 자리가 좁혀지므로 관심은 갈수록 적어진다고 보아진다.

〈표 8〉 전통복식문화에 대한 자부심

N=394

항 목	M(SD)
나는 사극이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전통복식이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3.51(1.18)
나는 규방공예(보자기, 자수, 천연염색, 매듭 등)를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3.49(1.11)
우리나라 전통복식이 다른 나라의 전통복식에 비해 특히 우수하다고 생각한다.	3.87(1.04)
나는 외국 친구들과 파티를 한다면 한복을 입고 싶다.	2.40(1.30)
나는 우리의 전통복식의 색이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3.77(1.03)
나는 사극이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전통복식을 입어보는 행사가 있다면 참가하고 싶다.	3.02(1.34)
외국 영화제에 우리나라 배우가 한복이나 한복을 응용한 드레스를 입는다면 자랑스러울 것이다.	3.79(1.18)
나는 한복이 아름다운 곡선미를 가졌다 생각한다.	3.71(1.13)
평균	3.45(1.16)

바) 전통복식문화에 대한 경험

고등학생의 전통복식문화에 대한 과거와 현재의 경험을 살펴보면 〈표 9〉와 같다.

전통복식문화에 대한 경험은 평균 2.43으로 낮게 나타났다. '나는 명절이나 가족행사에 한복을 착용한 적이 있다'(3.14)의 문항에서는 보통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청소년시기보다 과거 영아나 유아기때의 행사에서 한복을 착용하여 평균값이 높게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그리고 '부모님은 명절이나 가족행사에 한복을 착용하신다'(2.00), '나는 한복을 가지고 있다'(2.14)는 보통보다 낮게 나타났는데 특히 '부모님이 명절이나 가족행사에 한복을 착용하신다'는 문항은 5요인의 전체 문항에서 가장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가정에서 전통복식문화를 경험하거나 교육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낮을 거라 생각된다. 학생들이 전통복식문화에 대해 경험할 수 있는 기회는 가정보다 박물관 체험, TV시청, 인터넷서핑을 통해 정보를 받을 기회가 더 많다. 하지만 박물관 체험 역시 문화체험경험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청소년들에게 쉽지 않다. 때문에 복식문화에 대한 정보를 TV나 인터넷을 통해 전통복식

〈표 9〉 전통복식문화에 대한 경험

N=394

항 목	M(SD)
나는 명절이나 가족행사에 한복을 착용한 적이 있다.	3.14(1.22)
부모님은 명절이나 가족행사에 한복을 착용하신다.	2.00(1.08)
나는 한복을 가지고 있다.	2.14(1.29)
평균	2.43(1.19)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면 청소년들이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Ⅴ. 요약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전통복식문화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통해 가정교과의 전통복식문화를 비롯한 전통생활문화 관련 프로그램 기획 및 가정과교육에서의 전통복식문화교육의 강화를 지지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통복식문화에 대한 인식 및 태도의 구성요인은 교육의 중요성, 지식 및 관심, 계승의지, 자부심, 경험의 5요인이 도출되었다. 앞으로 문화프로그램이나 가정과교육에 있어 이러한 구성요인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전통복식문화의 인식 및 태도의 차이는 성별, 출생순위, 종교, 모 연령, 부 직업, 모 직업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성별에 따라서는 전통복식문화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p<.001$), 지식 및 관심($p<.001$), 계승의지($p<.001$), 자부심($p<.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전통복식문화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 지식 및 관심, 계승의지, 자부심이 더 높게 나타났다. 출생순위에 따라서는 교육의 중요성($p<.05$), 자부심($p<.05$)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성역할과 직업선택에서 남녀의 명확한 구분이 사라져가고 있는 지금 남녀모두에게 관심과 흥미를 끌며 학습의 차이를 줄일 수 있는 교육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중간 출생순위는 다른 출생순위에 비해 교육의 중요성, 자부심이 더 높게 나타났다. 종교에 따라서도 경험($p<.05$)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기독교는 전통복식문화에 대한 태도가 다른 종교에 비해 경험 및 태도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모 연령에 따라서는 계승의지($p<.05$)와 자부심($p<.05$)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모 연령이 40대일 때 계승의지와 자부심이 높게 나타났다. 부 직업에 따라서는 자부심($p<.05$)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부 직업이 공무원일때 자부심에서 높게 나타났다. 모 직업에 따라서도 교육의 중요성($p<.01$), 지식 및 관심($p<.05$)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모 직업이 공무원일 때 교육의 중요성에서 높게 나타났고, 판매, 서비스업일 때 지식 및 관심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셋째, 청소년의 전통복식문화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은 2.69로 보통보다 낮게 나타났다. 전통복식문화의 인식 및 태도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문항에서는 '학교에서의 전통복식교육은 관련 분야의 직업 교육에 도움이 되므로 중요하다', '전통복식교육은 우리의 전통문화를 이해하고 예절을 배우는 일이므로 중요하다'는 보통보다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나는 학교에서 전통복식교육을 배우고 싶다', '학교에서 전통복식교육을 해야 한다', '가족행사에 전통복식을 입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의 문항에서는 보통보다 낮게 나타났다.

청소년들의 전통복식문화에 대한 지식 및 관심은 2.52로 보통보다 낮게 나타났다. 지식 및 관심에 대한 문항에서는 '나는 규방공예(보자기, 자수, 천연염색, 매듭 등)를 알고 있다', '나는 한복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나는 규방공예(보자기, 자수, 천연염색, 매듭 등)를 활용한 소품을 가지고 있다'에서 보통보다 낮은 평균값을 나타내어 청소년들에게 전통복식문화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규방공예(보자기, 자수, 천연염색, 매듭 등)를 배울 기회가 있다면 배우고 싶다'의 문항에서는 보통 수준을 나타내어 규방공예에 대한 관심은 조금 더 긍정적이었다.

전통복식문화에 대한 계승의지는 3.53으로 보통보다 높게 나타났고 5요인 중에서 가장 높은 값을 보였다. 계승의지 문항에서는 '한복은 현재 생활에 맞게 개량·발전 시켜야 한다', '한복이 외국과의 문화교류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전통복식을 입고 예절을 배우는 것은 우리들의 정서 함양에 도움이 된다'로 모두 보통보다 높게 나타났다.

전통복식문화에 대한 자부심은 3.45로 보통보다 높았다. 자부심에 대한 문항에서는 '나는 사극이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전통복식이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나는 규방공예(보자기, 자수, 천연염색, 매듭 등)를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등의 문항에서 보통보다 높은 평균값

을 나타냈다. 하지만 '나는 외국 친구들과 파티를 한다면 한복을 입고 싶다'의 문항에서는 낮은 평균값을 나타내어 전통복식에 대한 자부심이 착용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전통복식문화의 경험은 2.43으로 보통보다 낮았으며 5요인 중에서도 가장 낮은 값을 나타냈다. 경험에 대한 문항에서는 '나는 명절이나 가족행사에 한복을 착용한 적이 있다'의 문항은 보통보다 높은 평균값을 나타냈지만 '부모님 명절이나 가족행사에 한복을 착용하신다', '나는 한복을 가지고 있다'의 문항은 낮은 평균값을 나타내어 청소년들의 전통복식문화에 대한 경험이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현행 교과서에는 전통한복의 착용법이나 전통 한복의 구성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너무 좁은 범위 뿐 아니라 알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닌 생활 속에서 전통복식문화의 의미를 알고 흥미와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교육방법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즉 교육현장에서 매듭이나 조각보 등의 소품제작, 천연염색 체험, 한복런웨이 감상 등으로 범위를 확장하고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위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청소년들은 전통복식문화에 대한 계승의지와 자부심은 높으나 그에 비해 전통복식문화에 대한 지식과 관심, 경험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청소년들이 전통복식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는 부족하고 국한되어 있으며 학교나 가정, 그리고 사회에서의 교육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청소년의 전통복식문화에 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교교육을 통해 전통복식문화를 인식하고 우수성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전통복식문화교육은 7차 개정 교육과정의 교육목표인 우리의 전통과 문화를 세계 속에서 발전시키려는 태도를 기르며, 심신이 건강한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하고, 성숙한 자아의식을 갖기 위한 교육으로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이 전통복식문화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학교와 가정, 사회에서 받을 수 있도록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가정과교육에서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미향(2005).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 의생활 단원의 내용분석과 수업만족도 조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도영(2006). 기술·가정교과서의 교수학습 자료개발에 관한연구: 한국복식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송미(2008). 청소년 문화원 전통수업 체험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수영(2010). 사물놀이활동이 청소년 자아정체감확립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국악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여경(2010). 2000년 이후 인쇄매체에 나타난 한복의 조형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영복(2009). 청소년 정서 교육과정 구성방안. **敎育硏究, 23**, 89-110.

김전숙(2007). 청소년이 공격성 감소를 위한 교육프로그램개발연구: 한국의 전통음악 사물놀이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형심(2007). 청소년의 문화 활동 경험이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인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흥미(2007). 청소년의 의복태도와 의복구매행동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소영(2009). 불안 및 우울, 자아정체감이 비행청소년의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 : 범죄유형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찬이(2010). 차 문화 프로그램이 청소년 정서적 안전성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여자고등학생을 중심으로. 한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현정(2006). 미술교육의 다문화적 접근과 적용에 관한연구: 고등학교 1학년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희순(2008). 천연염색 체험학습 프로그램의 실태와 개선방안 : 중학생프로그램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배현영(2008). 해석적 관점을 중심으로 한 가정과교육 의생활 문화영역의 교육과정안 개발 및 평과.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배혜영(2003). 고구려 고분벽화와 조선후기 풍속화에 나타난 복식의 미 : 중학교 미술과 감상수업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송경아(2006).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의 의생활 영역 학습에 따른 용어 및 내용이 해도와 실천정도.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안명숙, 김용서(2001). **한국복식사.** 서울: 예학사.

양미진, 이은경, 이희우(2006). 청소년 심리내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 상담연구, 14(1)**, 72-73.

유송옥(2001). **복식 의장학.** 서울: 수학사.

유희정(2008). 한복누리박물관 건립과 운영활성화 방안연구.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윤상희(2008).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다문화 미술 교육방안연구.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위키백과(2010. 3. 20). http://ko.wikipedia.org

이광미(2004). 기술적·해석적·해방적 행동체계에 따른 기술·가정 교과에 대한 중학생의 요구조사-의복마련과 관리 단원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민아(2006). 청소년의 가족여가활동과 가족건강성 연구 : 중학교 2, 3학년을 대상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은미(2008). 조선시대 장신구를 활용한 액세사리 제작수업 지도방안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수희, 신상옥(1997). 남녀 중학생의 의생활영역 학습내용과 학습방법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9(2)**, 115-130.

이주연(2001). 일반청소년과 통신 중독경향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지각과 자아정체감 비교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전경숙, 최동숙(2007). 중·고등학교 남녀학생의 기술·가정 교과활용도와 선호도 평가에 따른 단원분류 및 성별차이 분석-춘천시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9(3)**, 91-106.

정순덕(2009). 다양한 문양과 장신구를 활용한 패션디자인지도연구. 대구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인희, 최선형, 강순제(1997). 한국 도시 여성의 한복 착용에 대한 의식 : 서울, 대전, 부산을 중심으로. **한국복식학회, 35**, 253-264.

최명재(2004). **20년 후 너희들이 말하라.** 서울: 아침나라.

최인려, 홍경희(2009). 남녀대학생의 전통한복에 관한 태도 연구. **생활문화연구, 23(2)**, 71-74.

최윤실(2010). 청소년 정서순화를 위한 판소리 지도방안 연구. 중앙대학교 국악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경진(2009). 전통생활문화교육 및 전통복식문화에 대한 인식과 학교적응.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홍연림(1999). 형제지위변인과 형제관계가 아동의 성격특성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Erikson, E. H.(1980). *Identity and the life cycle*. New York : w.w. Norton & co.